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견 수렴...광주 발전의 밑알 될 것”

새정치 광주 구청장 경선 현직 4명 모두 승리

서구 임우진 후보, 2위 신현구 후보에 4표차 간발승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현직 프리미엄’과 지역 내 탄탄한 조직을 갖춘 현직 구청장들이 모두 승리했다. 11일 오후 동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 동구청장 경선에서는 노희용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 352표 중 218표를 얻어 134표를 획득한 양해령 후보를 누르고 새정치민주연합 동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 노희용 후보는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6월4일 본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성원에 보답할 것이며, 동구가 광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민주계 후보와 새정치연합계 후보가 맞붙은 서구청장 경선에서는 옛 민주계 후보인 임우진 후보가 승리했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구청장 경선에서는 임우진 후보가 유효투표 332표 중 168표를 얻어 164표를 획득한 신현구 예비후보를 4표 차로 눌렀다. 3자 대결로 치러진 남구청장 경선에서는 최영호 후보가 유효투표 332표 중 182표를 얻어 143표를 획득한 김만곤 예비후보를 눌렀다. 이철원 후보는 7표를 얻는데



노희용 동구청장 후보



임우진 서구청장 후보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



송광운 북구청장 후보



민형배 광산구청장 후보

그쳤다. 최영호 후보는 후보자 수락연설을 통해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리며, 남구발전을 위해 많은 지

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한 뒤 “민선 6기는 사람의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람 중심의 건강한 남구를 만들어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포

부를 밝혔다. 북구청장 경선에서는 송광운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 264표 중 152표를 획득해 112표를 얻은 조호근 예비후보를 누르고 3선

구청장 도전에 나선다. 송 후보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면서 “오는 6월4일 선거 때까지 더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하는 북구, 중단없이 발전하는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청장 경선에서도 현직인 민형배 후보가 승리했다. 민 후보는 이날 오후 호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 362표 중 194표를 얻어 89표를 획득한 서종진 후보를 눌렀다. 송경중 후보는 79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배제된 김종식 서구청장을 제외한 현직 구청장 4명이 모두 선출되면서 이들의 재선 및 3선 도전이 가능하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원 경선 ‘안철수계’ 완패

19개 선거구서 5명 선출뿐

지난 10일 치러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시의원 경선 결과, 상당수 선거구에서 옛 민주당 계 출신들이 ‘안철수 신당’(이하 안신당) 계 출신들을 제치고 후보로 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든 선거구에 ‘자기 사람 심기’에 성공했지만, 박해자 의원만이 ‘자기 사람’을 쟁기는데 실패했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지역 정치권의 분석에 따르면 광주시의원 19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출신은 14명, 안철수 신당 출신은 5명이 선출됐다.

“안 신당” 출신 5명 중 임택(동구 1선거구), 김보현(서구 2선거구) 후보 등 일부는 ‘안철수 계 신주류’로 분류되지 않아 ‘순수 안철수 계’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후보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운정현 광주시장 후보

와 안철수 공동대표 보좌관인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측과 가까운 인사들을 안철수 계 신주류로 분류하고 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모 인사는 “옛 민주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직력에 밀려 사실상 안철수계가 완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의원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측근들은 대부분 선출됐다.

다만, 동구 제1선거구에서 박주선 의원의 수행비서와 보좌관을 역임했던 심철의 후보와 김보현 후보가 모두 승리해 2년 후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서구갑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의원 경선 결과는 민주계와 국회의원들의 힘을 보여 준 것”이라며 “서구갑 선거구에서 박해자 의원 사람으로 분

동구 1	임택	안철수 대선후보보좌관 대외협력의원
동구 2	조세철	박주선 국회의원 사무국장
서구 1	심철의	고려대 총동창회 상임이사
서구 2	김보현	광주시의원
서구 3	김영남	광주시의원
서구 4	주경남	서구의원
남구 1	조영표	광주시의원
남구 2	유정심	5대 남구의회 의장
남구 3	박춘수	6대 남구의회 의장
북구 1	반재신	북구의원
북구 2	조오섭	광주시의원
북구 3	문상필	광주시의원
북구 4	전진숙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북구 5	김동찬	북구의회 의장
북구 6	이은영	광주시의원
광산 1	이정현	본랑농협 조합장
광산 2	문태환	민주광산공동협의회 단장
광산 3	김옥자	정동영 대선후보 광주여성위원장
광산 4	김종민	광주시의원

류되는 후보들이 모두 낙선한 것이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새정치 경기지사 후보 김진표

6·4지방선거 새정치 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에 김진표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날 정병국 의원을 누르고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된 남경필 의원과 맞붙게 됐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50%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가 반영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48.2%를 획득, 30.7%와 21.1%를 얻은 김상곤 전 교육감과 원혜영 의원을 제치고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9~10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49.3%를, 11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에서 47.2%를 획득해 모두 수위를 지켰다.

그는 후보자 수락연설에서 “무너진 경기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책임, 도민의 전일세·출퇴근·안전 걱정을 덜어 줄 책임, 경기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책임 등 태산 같은 책임을 느낀다”며 “반드시 이겨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사 13화로 국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재무부 세제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 총괄심의관에 이어 99년 세제실장을 지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등 급격한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경제 부총리로 임명되는 등 고위직을 맡았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에 출마했으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서태원 뒤 제1야당의 본선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

박승춘 보훈처장 또 망언

“큰 사건만 나면 정부 탓” 발언...새정치 “사퇴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세월호 참사’ 발언 논란과 관련해 박 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광은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박 처장이 세월호 참사를 미국 9·11 테러와 비교해 우리 국민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박승춘 ‘국민비하처장’은 더는 국민을 미개하다 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받은 월급을 모두 반납한 뒤 자

스타파는 “박 처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보훈처 ‘나라사랑’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처장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비난하는 반응들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연합뉴스

남종화 거장 아산 조방원 화백 별세

남종화의 마지막 거장 아산(龜山) 조방원 화백이 지난 9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관련기사 17면>



평생 수묵산수의 외길을 걸어온 그는 소치(小癡) 허련(許鍊), 남농(南農) 허견(許健)을 잇는 한국 남종화의 큰 산이었다.

남농을 사사한 고인은 스승의 기법에 기본을 두면서 남도의 정서에 맞는 투박하고 거친 수묵화의 경지를 이끌어 자신만의 독특한 수묵의 일가를 이뤘다. 동양 문화와 수묵산수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남도 정서를 담아낸 것이다.

특히 고인은 지난 1988년 개인 소장 미술품 6400점을 전남도에 기증하고, 더불어 자신 소유 토지(4300평)를 옥과미술

관 건립부지로 기증해 옥과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미술문화계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1926년 신안 지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남도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 아산미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교부장관상, 전남도 문화상, 대한민국 보림문화훈장, 의재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2녀가 있다. 고인은 11일 노년에 접어든 곡성군 죽곡면 연화리에 안장됐다. /김경인기자 kki@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기초의원 후보

- ◇동구
 - ▲가선거구 조승민·김성숙·신현 ▲나선거구 조기춘·이선순 ▲다선거구 박대현·김영기
- ◇서구
 - ▲가선거구 장재성·김광태 ▲나선거구 조숙정·오광교·오광록 ▲다선거구 이동춘·백종환 ▲라선거구 황현택·고광만·김옥수
- ◇남구
 - ▲가선거구 남광인·강원호 ▲나선거구 김경기·박용화 ▲다선거구 박희을·이창호 ▲라선거구 심병희·하주아·조기주
- ◇북구
 - ▲가선거구 고점례 ▲나선거구 심재섭·최무송 ▲다선거구 마광민·최기영 ▲라선거구 신수정·최홍용 ▲마선거구 조석호·이부일·김태환 ▲바선거구 이창재·양일

- ◇광곡기 ▲사선거구 이관식·김상훈 ▲아선거구 이병석·유관운
- ◇광산구
 - ▲가선거구 정병재 ▲나선거구 김동진·차경섭 ▲다선거구 김광란·김정자·이영순 ▲라선거구 김기순·조상현·이준형 ▲마선거구 조승유·최병식 ▲바선거구 임이엽·김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131226-중-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초빙 공고

우리 법인은 1946년 민족국가 건설에 기여할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개성교육, 창조교육, 인재교육’이라는 건학이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는 글로벌시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전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겸비한 총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초빙 대상

우리 법인의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겸비해야 하며, 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교 발전을 위한 추진력, 지도력을 갖춘 자로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련 규정은 조선이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제출 서류

1. 총장공모지원서 2. 대학경영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3. 서약서

접 수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 기간 : 2014. 5. 14.(수) ~ 2014. 5. 20.(화) 17:00까지
- 접 수 처 : (우)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학교법인조선대학교 법인사무처 법인팀(062-230-6022)

기 타

- 제출서류 양식은 조선이공대학교 홈페이지(www.cst.ac.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